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캠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71)(10/1/2021)

제 2 권 내면의 삶에 관한 권면들

제 9 장 어떠한 위로도 없이 지냄, 5-6 절

시 30:6-12 - 6.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7.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 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매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8.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9.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10.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11.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띠우셨나이다 12.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요 3:8 -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욘 7:18 - 아침마다 권장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5. 옛적의 한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고 있을 때에는,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시 30:6)라고 한 후에, 이어서 자기에게서 은혜가 떠나갔음을 느꼈을 때에는, “주의 얼굴을 가리시매 내가 근심하였나이다”(7 절)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때에도 그는 절망하지 않고, 더욱 간절하게 간구하였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였나이다”(8 절). 결국, 그는 기도 응답을 받았고, 자신의 기도가 응답을 받은 것을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돕는 자가 되셨나이다”(10 절).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그를 도우셨습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띠우셨나이다”(11 절)라고 그는 말합니다. 위대한 성도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 같이 연약하고 은혜가 깊이 얇은 사람들이 뜨거웠다가 냉랭하고 냉랭했다가 뜨거워지는 것을 수시로 반복한다고 해도,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자신의 기뻐하는 뜻에 따라 오기도 하시고 물러나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복된 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침마다 권장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욘 7:18).

6. 내가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하늘의 은혜를 소망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고 어디에 소망을 둘 수 있겠습니까? 내게 선한 사람들과 경건한 형제들과 신실한 친구들이 있고, 거룩한 책들과 아름다운 글들이 있으며, 달콤한 노래들과 찬송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게서 은혜가 떠나가서, 내가 원래의 곤고한 처지로 되돌아가게 되었을 때에는, 그런 것들은 모두 다 내게 별 도움도 되지 않고 별 위로도 되지 못합니다. 그런 때에는,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보다 더 나은 치유책은 없습니다.

말씀과 해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은혜가 넘치는 느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때도 있지만, 부정적인 일들과 고난과 아픔을 경험할 때면 이내 풀이 죽고 낙심하기도 한다. 아울러 큰 사고와 어려움을 당한 것도 아닌데도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고 신앙적인 열심을 잃기도 하며 곤고함을 느끼기도 한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은 수시로 변하고, 우리의 신앙적 열심은 기복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신의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자신의 정하신 뜻을 변함없이 이루어 가신다. 바람이 불 때 그것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 같이 성령님의 역사도

그와 같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의 이치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이끄심을 받을 뿐이다. 분명한 것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이다. 렘 29:11 -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새번역).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신 7:9 -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시편 117 편 기자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시 117:1-2 - 1.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2.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라도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신앙의 기쁨을 줄이기 위해 애써야 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신실하게 서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굳건한 바탕이 된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에게서 찾는다. 그래서 다윗은 시 39 편과 62 편을 비롯한 많은 시편에서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하며 찬양했다. 시 39:7 -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 62:5 -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느도다.

사람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유한하며, 금세 사라지고, 언젠가는 우리를 떠날 것이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원성을 노래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찬양한다. 신 33:27 -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사 40:28 -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딤후 1:17 -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동일하시다. 히 13:8 -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는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을 믿는다.

그러므로 성도는 금세 변하는 이 세상의 어떤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주님을 깨닫고 목상하는 성도는 자기 자신 역시 삶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실하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서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처럼 거룩한 것과 함께 하나님처럼 변하지 않는 신실함을 가지는 것이다.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환난 많은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2. 우리도 하나님처럼 신실하게 하옵소서.
3.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시고, 미래의 한국교회를 짊어지고 나아갈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목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